

분과 2

동유럽어와 한국어의 대조 연구

사회 : 백승주(전남대학교)

음향자질 비교를 통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양상 연구¹⁾

심현주·박안토니나(Southern Ukraini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K. D. Ushinsky, Ukraine)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인 한국어 자음 음가의 표기(transliteration)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에서의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음가의 표기 방식을 참고하여 자음 간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acoustic feature) 특징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인 음성자료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각 자음별 음향자질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두 언어의 자음별 음향자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음 간 대응 관계를 설정하였다. 하고 한국어 자음의 음가 표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자음의 음가 제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의 지각 및 산출, 오류 양상 등의 연구에도 기초자료로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재나 발음교육 관련서적에서는 보통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그리고 발성 유형(phonation type) 등을 기준으로 자음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음성기호(IPA)나 유사한 음가의 영어 자음을 병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공자가 아닌 이상 IPA를 보고 학습자가 그 음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영어와 같은 매개어를 사용하는 것도 한국어 자음이 가지는 본래의 음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²⁾ 그리고 교재에 따라 음가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이다(김서형, 2018; 안주호, 2018).

한국어 자음의 음가 표기를 외국인 학습자 측면에서 유용하고 한국인의 인식에도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의 분절음 발음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자음을 변별하는 음향자질의 특징과 위계를 분석하고 교재에 나타난 자음의 음가 제시 방법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배문정·김정오, 2002; 배문정 2010; 김서형, 2018; 안주호, 2018). 반면에 우크라이나어는 음가 표기에 있어서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음향자질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Pompino-Marschall 등, 2017; Vakulenko, 2019). 키릴 문자(Cyrillic alphabet)를 기반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어는 한국어교사에게 낯선 언어이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자음 간 대응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교사에게 직접 발음을 배우기 어려운 국외 학습자를 고려한다면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한 효용성 있는 한국어 자음 음가의 표기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작업이다.

1) 이 발표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연구(NRF-2020S1A5B5A17091193)의 일환임.
2) 국제음성기호가 서구어의 음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장애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은 아니다(김서형, 2018:292). 그리고 영어식 표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두 언어 간 말소리가 완전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이미향, 2007; 심현주, 2011).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체계 및 음가의 표기

한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로 /ㅇ/을 제외한 나머지는 초성으로 사용된다. 한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alveolopalatal),³⁾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조음 방법에 따라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뉘며, 장애음에는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이 있고 공명음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발성 유형에 있어서 한국어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다. 장애음이 삼중 대립을 가지면 보통 무성 평음(plain voiceless)과 유성 평음(plain voiced), 무성 격음(aspirated voiceless)로 나타나는데(허용, 김선정, 2013:101), 한국어의 경우 모두 무성음이며 기식성과 긴장성의 정도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의 삼지적 대립을 보인다.

그리스 문자에 기초한 키릴 문자(Cyrillic alphabet)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어는 말과 글을 가지는데 각 음소의 철자와 음가가 대체로 일 대 일 대응을 하는(정영주, 2012:192) 표음문자라는 면에서 한국어와 유사하다. 우크라이나어에는 모두 33개의 음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자음은 22개로 /Б, В, Г, І, Д, Ж, З, Й, К, Л, М, Н, П, С, Т, Ф, Х, Ц, Ч, Ш, Щ/가 있다. 그리고 두 자음이 합쳐진(two compound consonant) /ДЖ/와 /ЦЗ/가 존재한다.⁴⁾ 자음들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순치음, 치경음, 경구개치경음(palatoalveolar),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나뉘고 조음방법에 따라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된다. 장애음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전동음(trill)이 있고 공명음에는 접근음(approximant)과 비음, 유음이 있다.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특징으로는 모든 자음이 경자음(hard sound)과 연자음(soft sound)으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기본 음가대로 발음되는 경우를 경자음이라 하고 특정 음운환경에서 구개음화되어 실현되는 것을 연자음이라고 한다. 본 논의에서는 별도의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연자음과 활음 역할을 하는 반자음 /Й/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경자음 21개에 합성자음 2개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자음이 연구 대상이다.

국내외 교재에서는 우크라이나어 자음을 유사한 음가의 한국어 자음에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홍석우(2007)와 정영주(2012)를 살펴본 결과 자음 간 대응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어 발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의 부족으로 개별 연구자의 청각적 인식에 의존하거나 음향자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크라이나어 음가 표기의 기존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최근 IPA 표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졌다(Pompino-Marschall 기타, 2017; Vakulenko, 2019). 물론 아직은 실험음성학적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으나 IPA라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가 제시보다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체계를 IPA를 기준으로 대응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두 언어의 자음 간 일 대 일 대응을 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n 대 n의 대응을 보이거나 또는 서로 대응하는 자음이 없는 경우도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성적 유사성(phonetic similarity)의 관점에서 가장 유사한 음가로 판단되는 두 언어 간 자음을 서로 대응한다면 한국어 자음의 발

3) 신지영(2014)은 마찰음을 제외하고는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의 구분이 한 언어에서 의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영순 외(2013)에서도 경구개음 [t͡ɕ]와 후치경음 [t͡ʃ]의 음가가 대동소이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언어를 비교하는 만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박영순 외, 2013; 신지영, 2014; Ian, 1984)를 근거로 하여 치경경구개음으로 설정하였다.

4) 이와 반대로 우크라이나어 자음 'Щ'는 'Ш'와 'Ч'를 합친 것과 같은 소리로 영어 'fresh cheese'에서의 'sh-ch' 연쇄처럼 들린다. 우리말에는 이에 상응하는 소리가 없고 대체로 '쉬즈' 음에 가깝다(홍석우, 2007:14).

음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관계

방법	위치	양순음	순치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경구개-치경음	연구개	성문음
		파열음	한 ㅂ[p] ㅃ[p'] ㅍ[ph]		ㄷ[t] ㄸ[t'] ㅌ[th]			ㄱ[k] ㅋ[k'] ㅋ[kh]
	우	П[p] Б[b]		Т[t] Д[d]		К[k] Г[g]		
마찰음	한		-	ㅅ[s] ㅆ[s']		-	ㅎ[h]	
	우		Ф[f]	С[s] З[z]	Ш[ʃ] Ж[ʒ]	Х[x]	Г[ɦ]	
파찰음	한			-	-	ㅈ[tʃ] ㅉ[tʃ'] ㅊ[tʃh]		
	우			Ц[ʦ] ДЗ[dz]	Ч[ʧ] Дж[dʒ]			
전동음	한			-				
	우			Р[r]				
접근음	한		-					
	우		В[v]					
비음	한	ㅁ[m]		ㄴ[n]		ㅇ[ŋ]		
	우	М[m]		Н[n]		-		
유음	한			ㄹ[r/]				
	우			Л[l]				

2.2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

한국어 자음의 음향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논의로는 신지영(2014)이 대표적인데 조음 방법에 따라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 어두에서의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신지영, 2014)

구분	음향 특성	발성 유형별 차이	
파열음	VOT	경음 < 평음 ≤ 격음	
	F0(후행 모음)	평음 < 경음 ≤ 격음	
	강도 상승 속도	평음 < 격음 < 경음	
	H1-H2/F2	경음 < 평음 ≤ 격음 (경음: 짜내기, 평음/격음: 숨소리 발생)	
장애음	마찰음	마찰 소음의 길이	평음 < 경음
		기식구간의 길이	경음 < 평음
		마찰 소음의 중심 주파수	평음 < 경음
		F0(후행 모음)	평음 < 경음
		H1-H2/F2	경음 < 평음
파찰음	파찰음	마찰 구간의 길이	경음 < 평음 < 격음
		기식구간의 길이	경음 < 평음 < 격음
		F0(후행 모음)	평음 < 경음 < 격음

주. 공명음은 장애음과 달리 발성 유형별 대립이 존재하지 않아서 음향 특성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VOT가 경음과 나머지 두 발성 유형을 구별하고, F0는 평음과 나머

지 두 발성 유형을 구별하는 음향자질로 보았다. 그리고 폐쇄음의 발성 유형적 차이는 후행 모음의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데(신지영, 2014:227) 이러한 차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음의 차(H1 - H2)로 계산되며 평음과 격음은 숨소리(breathy) 발성으로 H1이 강해서 양수로, 짜내기(creaky) 발성인 경음은 H2가 강해서 음수로 나타날 수 있다(Joan, 2020:92).

〈표 3〉 한국어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수치

구분		평음	경음	격음
VOT(ms)	장혜진(2012)	70.05	14.4	78.24
	조민하(2004)	67	15.5	83
	Ahn(2019)	79	12	85
	서동일(1997)	49.1	39.5	60.3
	신지영(2014)	55 - 79	12 - 19	72 - 94
F0(Hz)	장혜진(2012)	154.67	197.90	214.46
	조민하(2004)	155	187	200
	Ahn(2019)	74	113	72
	신지영(2014)	150	189	238
모음음질(H1-H2)	신지영(2014)	숨소리(양수값)	짜내기소리(음수값)	숨소리(양수값)

파찰음은 마찰구간과 기식구간의 길이가 발성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F0 수치도 평음 < 경음 < 격음의 순으로 차이가 변별적임이 확인되었다(장혜진, 2012:88-89).

〈표 4〉 한국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수치

구분		ㄷ	ㅌ	ㅈ
마찰구간(ms)	장혜진(2012)	41.83	30.73	45.64
기식구간(ms)	장혜진(2012)	51.10	5.14	56
전체길이(ms)	장혜진(2012)	92.47	35.9	101.64
	최영숙(2014)	68.48	39.44	77.96
F0(Hz)	장혜진(2012)	154.79	195.57	218.54
무게중심(Hz)	최영숙(2014)	5962	7295	6285
	이주현(2005)	5386	5608	5208

마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찰구간의 길이는 /ㅍ/이 /ㅂ/보다 평균 42.89ms 길고, 반대로 기식구간은 /ㅂ/이 /ㅍ/보다 평균 45.03ms 긴 것으로 나타났다(신지영, 2014:120). 한편 F0와 마찰구간은 /ㅂ/과 /ㅍ/ 간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고 기식구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석재 등, 2008; 박채림, 2010). 한편 /ㅎ/는 공명음과 같이 혼동을 일으킬 만한 주변음이 없어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표 5〉 한국어 마찰음의 발생 유형별 음향자질 수치

구분		ㅅ	ㅆ
마찰구간(ms)	장혜진(2012)	67	109.9
	박채림(2010)	56.5	79.1
	문경진(2020)	97.4	184.2
	최소라(2013)	94	132
기식구간(ms)	장혜진(2012)	52	7
	박채림(2010)	20.1	13.5
	문경진(2020)	64.7	11.5
	최소라(2013)	13	8
	이석재 등(2008)	37	16
전체길이(ms)	장혜진(2012)	118.97	116.76
	박채림(2010)	76.6	92.6
	이석재 등(2008)	156	154
F0(Hz)	장혜진(2012)	206.5	197.2
	박채림(2010)	194.6	198.1
무게중심(Hz)	이주현(2005)	6461	6641

3.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성자료 수집과 음향자질 분석

3.1 자료 수집 방법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경우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직접 원어민을 대상으로 음성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음에 참여한 우크라이나인은 모두 6명으로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서 한국어를 학습 중인 성인 여성이다. 이들 중에서 4명은 19~22세의 대학생이며 나머지 2명은 대학교와 공립학교에서 교강사로 근무 중인 20대 후반 여성이다. 한국어 수준의 경우 5명은 초급 수준의 강의를 듣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중급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였다. 녹음 참여자의 국적은 모두 우크라이나이고 부모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녹음에 문제가 될 만한 청지각 및 발화와 관련된 장애는 없었다.

음성 녹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어 자음 23개에 모음 /a/를 결합한 CV 형태의 단음절을 무작위 순서로 녹음 참여자에게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읽도록 요청하였다. 녹음은 조용한 강의실에서 디지털 녹음기(ICD-UX523F)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률 44,100 Hz, 16 bit로 샘플링하여 wav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였다.

수집된 모든 음성자료는 프라트를 사용하여 각 자음별 음향자질을 측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녹음 참여자에 따른 음성의 크기 차이를 줄이고자 프라트의 Scale intensity 기능으로 평균 강도를 70dB로 평준화하였다. 각 자음의 음향자질은 스펙트로그램과 음파를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파열음의 경우 VOT, F0, 모음음질(H1-H2)의 세 가지를 측정하였다. VOT는 개방파열(spike)부터 성대 진동 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F0와 모음음질은 후행모음의 전반부 1/3 정도를 선택하여 평균 주파수(F0)를 측정하고 동일한 범위에 대해 스펙트럼을 분석해 첫 번째(H1)와 두 번째(H2) 배음을 측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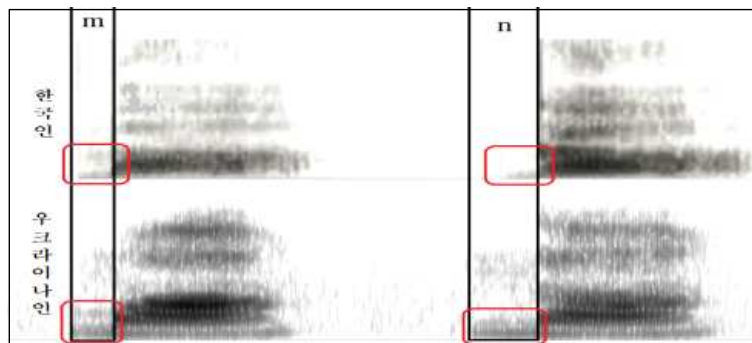
였다. 다음으로 파찰음에서는 마찰구간과 기식구간, F0, 무게중심을 측정하였으며 한국어 파찰음이 삼지적 대립을 보이는 만큼 모음음질도 참고하였다. 파찰음의 F0와 모음음질의 측정 방법은 파열음에서와 동일하다. 마찰구간과 기식구간은 개방파열과 후행모음 사이의 불규칙적인 잡음을 측정하였으며, 그중에서 기식구간은 스펙트로그램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소음부가 끝나고 모음이 관찰되기 전까지 모음의 포만트를 닮은 소음부로 하였다(신지영, 2014:244). 그리고 무게중심은 마찰소음부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찰음에서의 음향자질은 파찰음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다만 한국어 /ㅎ/는 음운환경에 따라 음가가 다양하게 변하는 등 그 독특성으로 별도의 음향자질을 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크라이나어 자음이 복수인 만큼 무게중심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3.2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관계 분석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을 바탕으로 자음 간 대응 관계를 크게 공명음과 장애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명음

비음의 경우 초성에 사용될 수 없는 한국어 /ㅇ/를 제외하면 두 언어에서 /ㄴ/와 /H[n]/, /ㄹ/와 /M[m]/가 일대일의 대응을 보인다. 그리고 혼동을 일으킬 만한 인접 음소가 없으므로 유사한 음가로 대응하여 제시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어는 비음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어는 초성에서 비음성이 매우 약하다.⁵⁾ 이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가 평파열음과 혼동하기도 하므로 발음을 제시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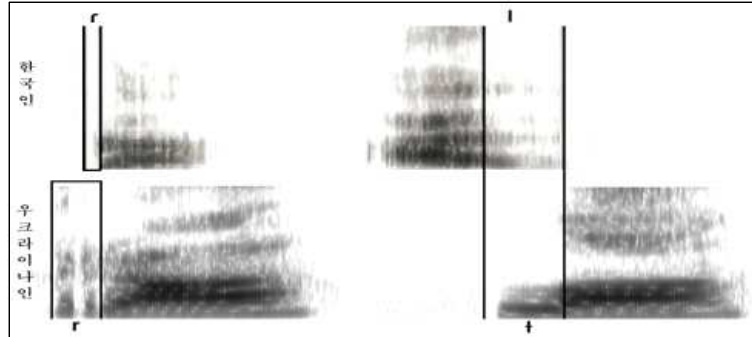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과 우크라이나인 비음 스펙트로그램

유음에서는 한국어 /ㄹ/은 초성에서 탄설음 [ɾ]로 실현되고 종성에서는 설측음 [l]로 발음된다. 반면 우크라이나어는 각각에 유사한 음소가 존재한다. 먼저 한국어 [ɾ]에는 우크라이나어 전동음 P[ɾ]가 유사하다. 두 음소는 조음 위치에서 큰 차이가 없고 짧은 전동음의 경우 혀치는 동작이 많지 않아서 유사하게 들린다. 다음으로 한국어 [l]에는 우크라이나어 J[l]을 대응할 수 있다. J[l]은 어두운(dark) 소리라서 한국어 받침 /ㄹ/과 음가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인 학습자의 한국어 받침 /ㄹ/ 발음을 실제로 들어본 결과 흔들릴 정도로 어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습자도 큰 어려움 없이

5) 한국인의 자료는 신지영(2014)에서 인용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인의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녹음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발음을 익혔다. 또한 영어의 경우 밝은 /l/로 실현될 때(leaf의 /l/) F2 값이 1,200Hz 정도이고, 어두운 /l/로 실현될 때(feel의 /l/) 800Hz 정도인데(오은진, 2015:87에서 재인용), 우크라이나인 음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F2 값이 평균 1118Hz(sd=189.7)로 밝은 /l/에 더 가까웠다.



〈그림 2〉 한국인과 우크라이나인 유음 스펙트로그램

(2) 장애음

파열음의 경우 조음 위치가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으로 두 언어에서 동일하다. 반면에 발성 유형을 구별하는 자질이 한국어는 기식성과 긴장성이고, 우크라이나어는 성대 진동(유성성)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음의 음향자질을 분석하여 어떠한 음소들이 서로 유사한 소리로 대응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어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 자질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어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발성 유형별 차이(평균값)
VOT(ms)	경음(18) < 평음(64) ≤ 격음(77)
F0(후행 모음, Hz)	평음(133) < 경음(172) ≤ 격음(181)
모음음질(H1-H2)	경음(음수) < 평음(0~양수) ≤ 격음(양수) (경음: 짜내기 소리, 평음/격음: 숨소리 소리)

이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의 음향자질을 분석, 수치화하고 조음 위치가 같은 유성음과 무성음에 대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F0에서 /K/와 /Γ/만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df=12, t=2.312745, p=0.03928) 나머지 음향자질에서는 자음 간 차이가 없었다.⁶⁾ 결국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은 유성성을 제외하면 음성적 실현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성 파열음과 무성 파열음이 한국인에게 서로 변별적으로 지각된다면 이는 유성성이 한국어 음소 분류에서는 잉여자질(Redundant feature)이지만 지각에서는 변별자질(distinctive feature)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⁷⁾

6) 전체적인 통계결과는 지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7) 우크라이나어와 마찬가지로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지각실험을 실시한 심현주(2020)에서도 자음의 유성성이 한국인 청자에게 평음처럼 지각하게 하는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7〉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유성 - 무성 간 차이(평균값)
VOT(ms)	П[p](22.8) ≃ Б[b](16.3), Т[t](26) ≃ Д[d](18.8), К[k](35.8) ≃ Г[g](31.8)
F0(후행 모음, Hz)	П[p](223) ≃ Б[b](220), Т[t](231) ≃ Д[d](202), К[k](240) > Г[g](181)
모음음질(H1-H2)	П[p](1.68) ≃ Б[b](1.53), Т[t](2.15) ≃ Д[d](1.29), К[k](-1.25) ≃ Г[g](0.57)

두 언어의 파열음 간의 대응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음향자질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VOT는 /K/와 /Г/를 제외 하고는 30ms 이하로 짧게 실현되고⁸⁾ F0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모음 음질을 나타내는 H1-H2는 양수로 확인되지만 그 값이 작아서 기식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⁹⁾ 따라서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은 조음 위치와 성대 진동에 관계없이 한국어 경음에 가까운 소리로 예상된다. 한편 유성 파열음의 경우 홍석우(2007) 등의 국내 우크라이나어 관련 서적에서는 한국인에게 보통 평음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우크라이나어 무성 파열음을 경음에 대응한다고 했을 때, 한국어 평음과 유성 파열음을 대응하여 변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파찰음에서 한국어는 경구개치경음인 반면에 우크라이나어는 치경음과 치경경구개음이므로 조음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발성 유형을 구별하는 음향자질도 차이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한국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은 다음과 같다.

〈표 8〉 한국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발성 유형별 차이(평균값)
마찰구간(ms)	경음(18) < 평음(30.7) < 격음(45.6)
기식구간(ms)	경음(5.1) < 평음(51.1) < 격음(56)
F0(Hz)	평음(154.8) < 경음(195.6) < 격음(218.5)
무게중심(Hz)	평음(5962.4) ≃ 격음(6284.83) ≃ 경음(7295.7)

우크라이나어 파찰음의 음향자질 분석에서는 〈표 7〉의 4가지 음향자질에 더해 모음음질(H1-H2)도 살펴보았다. 한국어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찬가지로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크라이나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을 수치화하고 평균한 후에 개별 파찰음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비모수 분산 분석(Kruskal-Wallis test for equal median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마찰구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chi2=4.517, tie corrected=4.518, p=0.2107), 나머지 음향자질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사후점검(Tukey's pairwise)을 실시하였다.

8) VOT 측정 시 유성 파열음도 개방파열 이전의 성대 진동은 배제하고 무성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한국어 파열음과의 지각적 유사성 분석에서는 성대 진동 여부보다는 개방 파열 이후의 단서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9) Pompino-Marschall 등(2017:4)에서도 우크라이나어 파열음은 기식성이 없다고 하였다.

〈표 9〉 우크라이나어 파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자음별 차이(평균값)
마찰구간(ms)	ㄴ[ts](99.4) ≃ ㄴ[ʃ](82.1) ≃ ㄷ3[dz](102.5) ≃ ㄷㄱ[ɕ](89.8)
기식구간(ms)	ㄴ[ts](16.1) ≃ ㄴ[ʃ](25) > ㄷ3[dz](4.8) ≃ ㄷㄱ[ɕ](4.5)
F0(Hz)	ㄴ[ts](255) ≃ ㄴ[ʃ](245) > ㄷ3[dz](223) ≃ ㄷㄱ[ɕ](224)
무게중심(Hz)	ㄴ[ts](8667) ≃ ㄷ3[dz](7935) > ㄴ[ʃ](3889) ≃ ㄷㄱ[ɕ](4345)
모음음질(H1+H2)	ㄴ[ts](1.68) ≃ ㄴ[ʃ](1.39) > ㄷ3[dz](-1.68) ≃ ㄷㄱ[ɕ](-1.43)

음향자질을 살펴보면 /ㄴ[ʃ]/가 기식구간이 가장 길고 F0도 높아서 /츠/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게중심에서는 /ㄴ[ts]/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조음 위치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며, 오히려 /ㄴ[ʃ]/가 /츠/와 조음 위치에서 더욱 유사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인에게 보통 /ㄴ[ʃ]/가 /츠/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ㅍ/은 /ㄴ[ts]/과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향자질 분석 결과를 보면 /ㄷ3[dz]/ 역시 /ㅍ/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기식구간이 /ㄴ[ts]/에 비해 짧으며 모음음질도 음수(-1.68)를 나타내 경음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 경음처럼 무게중심과 F0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식성이 없고 긴장성도 낮은 /스/에는 /ㄷㄱ[ɕ]/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기식구간과 F0값이 상대적으로 작고 무게중심도 한국어 평음과 가장 가깝다. 다만 모음음질이 짜내기 소리로 경음의 특징을 보이는데,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녹음 자료를 들었을 때 경음보다는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지각되었다.

마찰음에서는 두 언어 사이에 음소의 수와 분류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조음 위치에서 한국어는 치경음 /스, ㅍ/과 성문음 /ㅎ/이 존재하나 우크라이나어에는 순치음 /Φ[f]/, 치경음 /C[s] 3[z]/, 치경경구개음 /III[ʃ] ㄱ[ɕ]/, 연구개음 /X[x]/, 성문음/Γ[ɦ]/이 있다. 따라서 조음 위치에서 유사한 자음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어 마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은 다음과 같다.

〈표 10〉 한국어 마찰음의 발성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발성 유형별 차이(평균값)	
마찰구간(ms)	스(78.7) < ㅍ(126.3)	
기식구간(ms)	스(37.36) > ㅍ(11.2)	
전체길이(ms)	스(117.2) ≃ ㅍ(121.1)	
F0(Hz)	스(201) ≃ ㅍ(197.7)	
무게중심(Hz)	스(6461) < ㅍ(6641)	ㅎ(1176)

우크라이나어 마찰음의 분석에서도 모음음질을 음향자질에 포함하였다. 우크라이나어 마찰음의 음향자질을 수치화하고 평균한 후에 개별 마찰음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비모수 분산분석(유의수준 0.05)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식구간(chi2=1.021, tie corrected=1.022, p=0.3121)과 모음음질(chi2=7.922, tie corrected=7.93, p=0.2433)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그 외의 음향자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사후점검을 실시하였다. 자음의 개수가 많은 만큼 분석 결과가 복잡하여 조음 위치를 고려해 자음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스, ㅍ/은 /C[s], 3[z], III[ʃ], ㄱ[ɕ]/와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 /ㅎ/는 /Φ[f], X[x], Γ[ɦ]/와 비교하였다.

〈표 11〉 우크라이나어 마찰음의 발생 유형별 음향자질 비교(어두 위치)

구분	자음별 평균값	통계적 차이
마찰구간(ms)	C[s](155), 3[z](146), ㅅ[ʃ](195), ㅈ[ʒ](157), X[x](162), ㄱ[ɦ](136), ㅍ[f](106)	3[z] < ㅅ[ʃ]
기식구간(ms)	C[s](26.6), ㅅ[ʃ](21.9), 그외 기식성 없음	없음
FO(Hz)	C[s](251), 3[z](221), ㅅ[ʃ](249), ㅈ[ʒ](221), X[x](245), ㄱ[ɦ](224), ㅍ[f](245)	C[s] > 3[z], ㅈ[ʒ] ㅅ[ʃ] > 3[z], ㅈ[ʒ]
무게중심(Hz)	C[s](7215), 3[z](8155), ㅅ[ʃ](3839), ㅈ[ʒ](3148), X[x](2610), ㄱ[ɦ](1081), ㅍ[f](6699)	C[s] > ㅅ[ʃ], ㅈ[ʒ] 3[z] > ㅅ[ʃ], ㅈ[ʒ]
모음음질(H1+H2)	C[s](1.95), 3[z](0.28), ㅅ[ʃ](0.73), ㅈ[ʒ](0.23), X[x](1.73), ㄱ[ɦ](1.77), ㅍ[f](0.96)	없음

먼저 /s, ʃ/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어 마찰음 /C[s], 3[z], ㅅ[ʃ], ㅈ[ʒ]/를 보면 마찰구간은 대부분 /ʃ/보다 길게 실현되었고 기식구간은 /C[s]와 /ㅅ[ʃ]/에서만 나타났다. 한국어 마찰음 /s/이 /ʃ/보다 기식구간이 길다는 점에서 /C[s]와 /ㅅ[ʃ]/는 /s/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마찰구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C[s]/가 좀 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또한 /C[s]/가 /ㅅ[ʃ]/보다 무게중심에서 /s/와 더 유사하고 모음음질이 더 크다는 것도 이러한 대응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한편 /ʃ/에 대응할 만한 음소는 마땅치 않은데 ㅅ[ʃ]는 구개음화된 /s[ʃ]/로 들리고 /3[z]와 /ㅈ[ʒ]/는 마찰음임에도 오히려 파찰음 [ʒ, ʒ]와 각각 유사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홍석우, 2007:13).

한국어 /ㅎ/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Φ[f], X[x], ㄱ[ɦ]는 각각 순치음,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조음 위치가 다르다. 순치음 /Φ[f]는 보통 영어 /f/의 음가로 소개되지만 음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찰성이 약하고 기식성도 크지 않았다. 따라서 /ㅎ/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데 한국인이 ‘필라(FILA)’, ‘후라이드(fried)’로 지각하고 산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ㅎ/은 /X[x], ㄱ[ɦ]와 대응하는 것이 음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조음 위치뿐만 아니라 /ㅎ/처럼 음운환경에 따라 음가가 다양하게 변한다(Pompino-Marschall 등, 2017; Vakulenko, 2019). 특히 /ㄱ[ɦ]는 /ㅎ/와 같은 성문음으로 무게중심이 비슷하고 기식성도 약하다. 반면에 /X[x]는 긴 마찰시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흐아]처럼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 /ㅎ/에는 우크라이나어 /ㄱ[ɦ]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국어 자음을 어떠한 우크라이나어 자음으로 대응하여 제시하는 것이 실제적인지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우크라이나어의 음성자료를 분석하여 자음별 음향자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음향자질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서로 유사한 음가를 가지는 음소 간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0) 홍석우(2007) 등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C/가 /ʃ/로 지각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심현주(2020)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도 /C/를 /s/로 지각한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러시아 원어민의 경우 오히려 /ʃ/보다 /s/로 지각한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어에 대해서도 지각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5〉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음가 표기 방안

한국어 자음	우크라이나어 유사음	한국어 자음	우크라이나어 유사음
ㄱ	Г[g]	ж	ДЖ[ɕʃ]
ㅋ	К[k]	жж	Ц[ʦ], ДЗ[dz]
ㆁ	-	ч	Ч[ʧ]
ㄷ	Д[d]	с	С[s]
ㅌ	Т[t]	ш	-
ㄷ	-	л	Л[l]
ㅂ	Б[b]	р	Р[r]/Л[ʎ]
ㅃ	П[p]	м	М[m]
ㅇ	-	н	Н[n]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자음 음가의 표기 방식에 대한 실제성에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의 교육 방안과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자음의 음향자질 특징과 현지 우크라이나인의 음성자료를 분석하여 수집한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자질을 비교함으로써 자음 간 음가 표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ㅃ, ㅅ, ㅆ/와 마찰음 /ㅃ, ㅆ/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어로 한국어 자음의 음가를 표기할 수 있었다. 다만 대응 자음이 없는 /ㄱ, ㄷ, ㅌ, ㅃ, ㅆ/는 억지로 대응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학습자가 본연의 음가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인 학습자에게 자음 발음을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또한 우크라이나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지각과 산출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음향자질의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대응 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 음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쟁에 놓인 외국어 표기법에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분석 대상 자료가 다소 미흡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 실정으로 인해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 충분한 음성자료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표준 발음을 선별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어 역시 지역에 따른 방언이 존재하고 이는 발음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변인을 통제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음성적 대응 관계가 실제 지각과 산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서형. (2018). 한글 자모 교육에서의 자음 음가 표기 방안 연구. *반교어문연구*, 48, 283-308.
- 문경진. (2020).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마찰음 /스, 쓰/ 발음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박영순 외. (2013). *한국어와 한국어교육—개정판*. 한국문화사.
- 박채림. (2010). 영어 마찰음 /S/와 한국어 마찰음 '스, 쓰'에 관한 대조 음향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배문정. (2010). 한국어 자음에서 변별 자질들의 지각적 위계. *말소리와 음성과학*, 2(4), 109-118.
- 배문정 & 김정오. (2002). 한국어 자음의 지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4(4), 375-408.
- 서동일, 표화영, 강성석, & 최홍식. (1997). 한국어 파열자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8(2), 217-224.
- 신지영. (2014).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2nd ed). 한국 문화사.
- 심현주. (2020). 한국어와 러시아어 자음 간 지각적 대응 관계 분석. *언어와 문화*, 16(3), 183-204.
- 안주호. (2018). 한국어 통합교재의 음소 제시 양상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2, 231-256.
- 오은진. (2015). *외국어 음성 체계*. 한국문화사.
- 이미향. (2007). 효율적인 교수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어교재의 한글 교수 단위 연구. *언어과학연구*, 42(0), 81-105.
- 이석재, 장재웅, 김태경, 김정아, 장운자, 성제현, 임수경, & 김종덕. (2008).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마찰음 /스/ 와 /쓰/ 구분의 음향 단서 분포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연구*, 24(2), 261-280.
- 장혜진. (2012). 국어 어두 장애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영주. (2012). [우크라이나어-한국어 사전] 의 편찬 원칙과 특징. *한국사전학*, 19, 186-216.
- 조민하. (2004). 서울과 대구 방언 파열음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소라. (2013). 치경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 한국인의 영어와 한국어 발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영숙. (2014). 한국어와 일본어 파찰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 분석-마찰소음구간과 무게중심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31, 317-333.
- 홍석우. (2007). *핑 먹고 알 먹는 우크라이나어 첫걸음*. 문예림.
- Franko, R. (1994). *Ukrainian for Speakers of English Oral Exercises*. Brush Education.
- Ian, M. (1984). *Patterns of sou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an, B. (2020). *음향음성학 기초매뉴얼*. 한국문화사.
- Pompino-Marschall, B., Steriopo, E., & Żygis, M. (2017). UKRAINIA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47(3), 349-357.
- Vakulenko, M. O. (2019). UKRAINIAN CONSONANT PHONES IN THE IPA CONTEXT WITH SPECIAL REFERENCE TO/v/AND/gh/. *Linguistica Online*, 22.
- Силка, А. А. (2018). Українська мова для студентів-іноземців медичного профілю (з російською мовою навчання). Університетська книга.

〈토론〉 “음향자질 비교를 통한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 자음 간 대응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권성미(부경대)

자음의 언어 간 특성을 기술하는 데에는 음운론적인 차원에서의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심현주·박안토니나 선생님의 연구는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은 물론, 자음 체계상 우크라이나어 자음과 우크라이나어 자음에 대응되는 한국어 음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음향학적 측면에서 상세히 고찰하신, 상당히 학술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두 분 선생님의 연구는 우크라이나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발음 교육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신 귀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선생님들의 연구에 대한 저의 이해를 확인하고, 선생님들의 연구 내용 중 몇몇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어의 유무성 파열음의 VOT 값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사하신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어의 무성 파열음은 VOT가 22.8~35.8ms로 short 유형이며, 유성 파열음 역시 16.3~31.8로, short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크라이나어의 유무성 파열음은 VOT로는 대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유무성 변별에 VOT가 음향적인 변별 자질로 기능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Pompino-Marschall(2017)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어의 유성음은 진짜 유성음으로(fully voiced), VOT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lead 유형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어의 파열음의 발성 유형은 러시아어나 프랑스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성음과 무성음이 lead와 short로 변별되는 체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권성미 2019, 새국어교육 118호). (러시아어나 프랑스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은 lead-short로 대립되며, 영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이 VOT에 있어서 short-long으로 대립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의 유성음과 달리 ‘진짜 유성성’을 가진 유성음의 경우, 폐쇄를 해제하기 전 폐쇄 지속 구간에서 이미 진동이 관찰됩니다. VOT를 측정하실 때 폐쇄 구간의 유성성(진동)을 관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어 자음의 발성 유형에 따른 후행모음의 F0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파열음의 경우, <표 5>에서 나타내신 바에 따르면, 치조파열음과 연구개파열음의 경우는 무성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유성음의 경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순파열음의 경우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순파열음만이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양순파열음의 경우는 파찰음, 마찰음의 유무성 대립에 나타나는 f0의 특징과 유사해 보입니다. (파찰음과 마찰음의 경우, 유무성음 간 f0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열음과 달리, 파찰음과 마찰음에서는 유무성음 간에 f0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양순파열음의 경우, 다른 파열음들과 다른 경향성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측정 지점에 대한 것을 포함해 f0를 측정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 연구

-신체 어휘 ‘눈, 머리, 손’을 대상으로-

HASMIK TSHAGHARYAN(Yerevan State University, Armenia)

안녕하세요?

아르메니아 예레반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하스미크 짜하리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시작하여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눈, 머리, 손’과 관련된 관용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언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 대조 분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구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적 의미 해석이 어려운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신체 어휘 관용구란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관용구를 말합니다. 신체 어휘 관용구는 인간에게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관용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체 어휘 관용구가 활발하게 쓰입니다. 다른 관용구보다 신체 어휘 관용구는 이해하기 쉽고 또한 양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1. 서론입니다.

1.1 연구 목적은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 간의 관용구 중에서 신체 어휘 관용구를 대상으로 하여, 대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양국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나아가, 양 언어 간의 신체 관련 관용구의 의미와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인 차이의 대조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아르메니아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고 양쪽 모두 다른 말을 쓰며, 각 언어의 표현법이 다르더라도 신체 부위가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까운 것이기에 의미적인 측면에서 양 언어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2 연구 방법입니다.

논의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눈, 머리, 손’과 관련된 관용구 소개와 다섯 가지 대응 유형에 따른 대조·분석으로 전개됩니다.

다섯 가지 대응 유형이란, 첫째, 표현과 의미가 비슷한 경우(유형유의), 둘째,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경우(이

형유의), 셋째, 표현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유형이의), 넷째, 한국어에만 있는 경우, 다섯째, 아르메니아어에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눈, 머리, 손’과 관련된 관용구 소개입니다. 신체 어휘 관용구 목록으로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국어기초사전』, 아르메니아어의 경우에는 P.Bediryanyan(2011) 『아르메니아어 관용구 해명 사전』과 A.Sukiasyan & S.Galstyan(1975) 『아르메니아어 관용구 사전』에서 추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눈(աբխ)’, ‘머리(գլուխ)’, ‘손(ձեռք)’과 관련된 관용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된 신체 어휘 관용구 140개를 대상으로 이에 대응되는 아르메니아어 신체 어휘 관용구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양국의 신체 어휘 관용구의 총수

언어 \ 신체어	눈	머리	손	총계
한국어	67 (47.9%)	46 (32.9%)	27 (19.2%)	140 (100%)
아르메니아어	58 (49.6%)	29 (24.8%)	30 (25.6%)	117 (100%)

이 표를 통해 보면 한국어는 ‘눈(67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머리(46개)’, ‘손(27개)’의 순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어의 경우에는 ‘눈(58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손(30개)’, ‘머리(29개)’의 순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두 언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 대조 분석입니다. 바로 대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 대조 유형별 신체 어휘의 빈도

신체 어휘 \ 유형	유형 유의	이형 유의	유형 이의	한국어에만 있는 경우	아르메니아어에만 있는 경우	총계	
	눈	13	25	5	23		20
머리	11	17	5	13	5	51	
손	7	15	1	6	8	37	
총계	총 합계	31	57	11	42	33	174
	비율	(17.8%)	(32.8%)	(6.3%)	(24.1%)	(19%)	(100%)

총174개의 관용구를 5 가지 대응 유형에 따라 대조하였는데 먼저, ‘이형유의’가 3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형이의’가 6.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먼저 ‘유형유의’입니다. 대조 대상인 174개의 용례 가운데 양국어가 유사한 관용구가 31개로 17.8%를 차지했습니다. 표현과 의미가 비슷한 경우를 살핍으로써 양국의 ‘눈, 머리, 손’에 대한 인지방식이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시간 제한 때문에 모든 예를 살필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유형유의’의 예를 들자면, 잠시 동안 잠을 자다’의 의미를 눈을 뜨고 감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한국어 관용구 ‘눈(을) 붙이다’와 아르메니아어 관용구 ‘աչխ կայ գնիլ 눈 붙이다’는 표현과 의미가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잠에서 깨어나면 눈을 뜨는데, 눈의 개폐가 수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두 언어의 기본 발상은 같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머리(를) 굽히다’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에 똑같이 ‘굴복’과 ‘굽실거림’의 의미를 머리의 자세로 관용적으로 나타냅니다.

‘손’ 관용구 대조: ‘손을 씻다’와 ‘ծռնվերը կլանալ 손들을 씻다’는 양국에서 비슷한 표현과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손을 씻다’는 더러워진 손을 씻는 경험이 그것과 똑같이 언어에 반영되어 특히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2 ‘이형유의’입니다. 양국에서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경우(이형유의)’가 총 57개(32.8%)이며, 대조 분석에 대한 다섯 가지 대응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경우’의 예를 들자면, ‘눈’이 몸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으로 눈으로 존중과 관심 따위를 관용구에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면; 한국어의 경우 ‘눈 밖에 나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어의 경우 ‘눈에서 떨어지다’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비슷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일이 어렵거나 복잡해서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주로 쓰인 표현으로 한국어의 ‘머리가 빠지다’와 그에 대응되는 아르메니아어의 ‘գլուխը սարսռել 머리(가) 터지다’가 있습니다.

‘손’ 관용구 대조: 인간의 손은 남을 때리고 해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손으로 살짝 때려도 몹시 아프다’의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맵다’라는 형용사가 결합되고 아르메니아어의 경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무겁다’라는 형용사가 결합됩니다.

3.3 ‘유형이의’입니다. ‘표현이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유형이의)’가 11개(6.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 언어에서 비슷한 표현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예를 들면, ‘눈이 시뻘겋다’와 같은 표현은 비슷하지만; 한국어에는 ‘자기 이익만 찾는 데에 몹시 열중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아르메니아어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양국에서 모두 ‘머리(가) 굳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머리(가) 굳다’는 한국어에서는 ‘사고하는 능력이나 기억력 등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인지와 관련된 것이고, 아르메니아어에서는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손’ 관용구 대조: 양국에서 ‘손이 가다’라는 표현은 같지만 한국어에서는 ‘음식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다’의 의미가 있고, 아르메니아어에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지닌 것’의 의미가 있어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한국어에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어에는 대응되는 표현이 없는 한국어 표현 총 42개(24.1%)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어에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인들이 익숙하여 잘 쓰는 신체 어휘 관용구들 중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들과 그들의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예를 들면, 한국어 관용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은, 사랑스러운 대상은 작고 귀여운 것이라 눈에 집어넣을 수 있거나 눈으로 가릴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특이한 표현이므로 아르메니아어에는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머리(를) 깎다’라는 관용구는 불교에서 ‘스님이 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아르메니아어에 이 관용구가 없는 이유는, 아르메니아는 서기 301년에, 기독교를 공식 종교(국교)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이므로 불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교에 관한 관용구가 아르메니아어에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가 한국어 신체 어휘 관용구의 다양하게 쓰인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아르메니아어와의 전통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손’ 관용구 대조: ‘손에 장을 지지다’라는 한국어 관용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며, 이 관용구가 아르메니아어에 없는 이유는 간장을 꿰는 한국 고유문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5. 아르메니아어에만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에는 대응되는 표현이 없는 아르메니아어 표현 총 18개를 살펴봤습니다.

‘눈’ 관용구 대조: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어 관용어 ‘눈이 얼다’라는 표현은 ‘손님이 곧 올 것을 알리는 징조로 여겨지다’의 의미를 갖는 특이한 표현이므로 한국어에는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 관용구 대조: ‘죽음의 원인이 되다’의 의미를 갖는 아르메니아어의 ‘մեկի գլուխն ունել 어떤 사람의 머리를 먹다’라는 관용구에 대응되는 한국어 관용구를 찾지 못 하였으며 아르메니아어의 특유의 관용구라 할 수 있습니다.

‘손’ 관용구 대조: 아르메니아어의 ‘[ւոջկա] ձեռքը խնդրել [여자의] 손을 요청하다’는 아르메니아의 청혼 풍습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이런 청혼 풍습은 아르메니아 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랍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노진서 (2015: 19-20)는 ‘ask for her hand’은 단순히 그녀의 손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에게 청혼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아랍 문화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아주 예전부터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 먼저 여자의 부모와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만날 때 그 집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미로 딸의 손을 요청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 집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Emara2016: 144)

결론: 이렇게 해서, 대조 분석을 통해서 양 나라의 개념, 문화적 특성, 가치관, 전통 풍습, 종교적 차이까지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연구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대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 연구
- 신체 어휘 ‘눈, 머리, 손’을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진대연(선문대학교)

먼저 재미있고 유익한 발표의 토론을 하게 해 주신 학회와 발표자께 감사를 표하고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의미를 언급한 후 몇 가지 요청과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토론문을 구성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밝히신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를 대상으로 의미와 표현 방식을 대조하여 양국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인 차이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눈, 머리, 손’과 관련된 관용구 소개(2장)와 두 언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 대조 분석(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관용구 대조를 통해 양국의 사고방식, 문화적 특성, 가치관, 전통풍습, 종교적 차이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아르메니아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양국 간의 상호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몇 가지 요청 또는 질문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발표자께서 참고 자료를 인용하여 <표 1>에 제시하신 ‘양국의 신체 어휘 관용구 수’는 한국어 140개, 아르메니아어 117개로 합계가 257개입니다. 그런데 <표 2>에서 대조 유형별로 제시하신 관용구의 총계는 174개입니다. 유형유의, 이형유의, 유형이의 등의 유형에서 중복된 것이 있어서 조사 대상 관용구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무엇 때문에 숫자가 달라진 것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이에 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2) 이형유의 유형의 사례로 한국어의 ‘머리가 빠지다’와 아르메니아어의 ‘գլուխը պայթել(머리가 터지다)’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도 같은 의미로 ‘머리가 터지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유형유의 유형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3) 한국어에서 ‘머리’는 영어의 ‘head(머리통), brain(뇌), hair(머리카락)’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다’와 ‘머리를 깎다’에 들어 있는 ‘머리’는 엄밀하게 보면 다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머리’가 아르메니아어로는 어디까지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의적인 어휘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발표자께서는 아르메니아의 대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약간 확장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대조 연구를 하신 결과를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르메니아의 한국어교육 현황은 대체로 어떤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거리를 제공해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Kaspars Klavins, Dr. hist.

Acting Professor,
Faculty of Humanities, Department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Latvia
Mobile: +371 25641150
E-mail: kaspars.klavins@lu.lv
Visvalža 4a, Riga
LV-1050, Latvia

Korea in the dialogue between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and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Today, Korea is known as one of the East Asian intellectual centers. In addition, Korean thinkers are recognized for their critical evaluation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However, contemporary Korean philosophical thought has gone through a short but extremely intense period of development – from the rapid adaptation of Western education to the reappraisal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 the context of spiritual dialogue between East and West.

Korea in the dialogue between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and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The situation of Korea in the East-West intellectual dialogue is unique, considering its late yet extremely intense integration in this process and the great transformations that Korean philosophers, writers, literary scholars and publicists have experienced in a short period of time.

Korea's spiritual and intellectual contact with the West began in the 18th century, when Christian missionaries from Europe began their work in the country. When the early Catholic mission started in Korea, it was dominated entirely by Neo-Confucianism supported by the ruling Joseon dynasty, and the ruling *yangban* class stressed the importance of faithful service to society and Confucian moral ethics. This sparked a number of disagreements between missionaries and Korean scholars, which is reflected in written sources of the Joseon dynasty. Contrary to the importance of the theory of original sin and the concept of the afterlife in Christianity, Confucianism focused on

this lif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gnostic, rationalist and society-oriented Confucianism, Christianity was at best a curious superstition, a kind of marginal Buddhism or even less worthy. The theory of heaven and hell was perceived as psychologically understandable desire, rooted in the selfish nature of human beings. Furthermore, Christianity was seen as destroying the social order, because it placed God above parents and the king, in contrast to Confucianism, which stressed the pa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his people as well as filial piety as the most essential virtues. Nevertheless, despite its initial failures, Christianity in Korea succeeded due to Protestant missionaries, whose worldview framework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stant movements of religious awakening (Great Awakening) in Europe and America. In addition, Korean traditional shamanism aided in promoting Christianity as a religion of revelation. Shamanism was widespread among the majority of the rural population, from which the ruling educated Confucian elite had gradually distanced themselves. In Korea, the seeing of vision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and the active search for personal connection to the spiritual world (God) were automatically associated with shamanic practices, hence intensive prayers were perceived as analogous to the intensive meditations characteristic of shamanism. Another factor tha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piritual modernisation of Korea “along Western lines” was the formal education (reading and writing skills) promoted by Christian missionaries and the schools they 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were already in place for the expansion of literacy: books and newspapers using the Korean script rather than classical Chinese (which had been the standard medium of written exchange in the Joseon period) became widespread, and written Korean became more easily accessible to the common reader. Moreover, with the influx of modern Western culture and the institutions of a bourgeois society came new ways of perceiving the world and the individual’s place within it. (Yi Nam-ho, U Ch’anje, Yi Kwangho, Kim Mihyŏn, 2001, p. 6).

Contemporary Chinese scholars have similarly evaluated the role of the 19th century Western Protestant Christian missionaries in China during the late Qing perio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ir translation work in proposing new terminology, new concepts and hence also another world outlook, and as a result:

They opened new horizons and broadened the vision of reality for the Chinese people. These translations have exerted tremendous impact on the mentalities of the Chinese during the crucial historical period. They challenged the prevalent values and served as a mirror that forced Chinese people to reexamine themselves and the future of their nation (Yi Zhang, 2018, p. 274).

However, none of this lessens the long and significant influence of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in Korea nor the huge upheaval Korean thinkers experienced in the 20th century as they attempted to integrate into the Western philosophical (and literary) discourse. First of all, here one must focus briefly on Confucianism, considering that, apart from China, Korea was the first country in which Confucianism exerted a sweeping influence and, apart from China, Korean Confucianism has the longest and

richest history. The problem is that, in its essence and in the issues it addresses, Confucianism is very different from Western philosophy, and therefore one may with good reason question whether it can even be qualified as a “philosophy” from the Western perspective, which has evolved from the ancient Greek philosophical discourse. Already Confucius (551–479 BC) himself was largely concerned with social issues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cosmology or knowledge as a philosophical concept.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Confucianism, which was emphasised in Korea as a positive setting, a human being through self-cultivation (moral training):

[...] sets a foundation for proper social relationships,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familial and national stability and peaceful existence. Moral relations are basic to social relations and social order, and this type of existence extends its influence to the world beyond, i. e., the transcendental realm, as well. (Keum Jang-tae, 2000, p. 16)

In Korean Neo-Confucianism, themes connected with human beings are unfortunately very difficult to integrate into academic philosophical discussion according to “Western standards”, because it is hard to grasp:

[...] what a human being exactly signifies, what the self-cultivation to be a human being means, why it is ever necessary, even how far it is worthwhile to talk about it, and so on. (Yoo Weon-Ki, 2018, p. 56)

As well the discussions that arose among Neo-Confucian scholars in China early in the 18th century, for example, as to whether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man and matter existed, were rejected by the conservative Korean thinkers. At the same time, Confucianism gradually lost its freshness as a teaching based on empirical principles, which dictated increasing openness among the ruling social strata with regard to “practical learning”. In the 19th century, the Kingdom of Joseon, despite its official ideology of harmony, stability and human enlightenment, as a hierarchical society based on birth and bloodlines, was already at the brink of a social explosion. All of this led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to an ever-increasing desire for “Western knowledge”, which in time was associated not only with Christianity and the modern technologies of the day but also with Western literature and philosophy as an alternative view of the world. As a result, the very rapid adaptation of Western philosophy and literature took place in Korea at approximately the same time. Already since 1908 an impressive number of young Korean writers had begun writing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Western literature.

The overlapping of philosophy and literature in East Asia – and, consequently, Korea – was influenced by another cultural feature, namely, here “philosophers” were not so much philosophers as writers who expressed their view of the world in works that, according to the Western understanding, would more likely be classified as literary essays. In East Asia, however, these works addressed politics and didactics (providing instructions on how to deal with people, things, etc.) much more than their Western counterparts did.

The adopting in Korea of Western philosophical concepts and terminology began in earnest in the 1920s, after Korea had already become a Japanese colony. As a result,

the West was not associated here primarily with imperialism and colonialism, as it was in many other places. Like mathematics, physics, psychology and sociology, philosophy was a new discipline that came from the West and was perceived as necessary and useful knowledge to Korean society. According to Young Ahn Kang:

Essentially, the first Korean philosophers' problems, their method of dealing with these problems, their concepts, and their way of thinking and writing were modeled on Western philosophy. So-called "East-Asian philosophy" was excluded completely from their intellectual education. In this respect, they we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philosophers of earlier generations. The first Korean philosophers shared their problems and philosophical methodology with, for instance, those of the Neo-Kantians, the Neo-Hegelians, and the Husserlians... Modern education is specific in the way it uses completely new technical words and terms such as Freedom (自由), Equality (平等), Justice (正義), Right (權利), Individuals (個人), Subject (主體, 主觀), Thought (思想), Reason (理), Rationality (合理性), Rationalism (合理主義), Empiricism (經驗主義), Inquiry (探), Science (科學), and many others. These are vocabularies which determine human activity and the human place in the world, different from traditional ways of thinking. The first generation of contemporary Korean philosophers came to understand humans and the world by learning these new vocabularies and new ways of seeing and thinking. They did not need to explain the meanings of these academic words and terms; they used them as they used their spoons and chopsticks.

Today, Korea is known as one of the centres of East Asian philosophical thought. In addition, Korean intellectuals are recognised for their ability to speak on behalf of all of East Asia – in their emphasis of the ancient East Asian spiritual teachings as an alternative to the dualism of the confrontative, black-and-white Western worldview. Likewise, contemporary Korean intellectuals are famous for their criticism of the global ideology of capitalism, which bears a certain influence from Marxism and Neo-Marxism (but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North Korean ideology of *Juche*; we are speaking here about South Korea).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en the criticism of Western philosophy (and the value system advocated in the West) began in Korea. This is partly due to the geopolitical and socio-economic upheavals of the 20th century, the inability of the West to offer a philosophy-based value system that is suited to East Asian society, and the stagnation of European intellectual thought as well as the non-existence of a positive spiritual strategy on the part of the West in the 21st century. The arrival in Korea of Marxist socio-political theory (and, along with it, Marxist philosophy) took place already in the 1920s under the guise of anti-imperialism and anti-feudalism, at the same time supporting Korean national liberation. Of interest in this context is, for example, Shin Nam-ch'öl's (1907–1958) critique of the dominant philosoph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Western idealist philosophies (Neo-Kantianism, Neo-Hegelianism, phenomenology, existentialism), which, albeit very simplified, encouraged the adapting of foreign philosophy based on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colonial reality instead of simply accepting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as is. Speaking of Marxism in a narrower sense, Shin Nam-ch'öl's

critique of Western Oriental studies was very significant for the field's sole concern with ideological phenomena such as religion, philosophy, arts and literature while completely ignoring the economic base and relations of production, thereby asserting the necessity of Marxist methodology in Oriental studies.

The complicated times of social transformation after the nation's independence (1946-1960) (overshadowed by the ghastly Korean War (1950 - 1953), the following period of rapid industrialization (1961-1980) facilitated an increasingly critical attitude to the West among Korean intellectuals. It was not only the value of the family in Confucianism or the respect towards authorities and elderly people that was crucial in the criticism of the Western worldview, which grew through estrangement in the society, general commercialisation and escalation of competition at work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proposing an alternative system of values – also traditional spiritual teachings of Taoism and Buddhism has an enormous significance in Korea. In many senses these teachings provide the opposite to the arsenal of Western expansionist ideas with its traditional dualism of opposing “the good” and “the evil”, glorification of a person's permissiveness, hypertrophying of an individual's ego and the tendency to privatisation event in the area of human relations. From the vantage point of Buddhism an accurate criticism of the world outlook of Western society f. ex. has been formulated by one of contemporary Korean Buddhist theoreticians Misan:

Every being on Earth is connected to each other. That's why there is no happiness when one's thinking or behaviour becomes extreme. Buddhism teaches us that we attain the greatest happiness only when the middle way of thinking and a moderate life and behaviour are made possible. For that, we need a certain amount of wisdom to see others from an independent point of view. Only then can we reduce the evils of democracy and capitalism, which today we enjoy very much.

Buddhism in Korea is more than deeply rooted – Korea can also boast a specifically Korean version of *chan Buddhism*, created by philosopher Chinul (1158–1210), who proposed the reconciliation of sudden enlightenment with the appropriate religious texts. Taoism, in its turn, had over time coalesced with the Korean mentality and feeling of nature, thus becoming omnipresent – from painting, poetry and garden planning principles to the world outlook in general. In comparison to Buddhism it is in essence equally far from the Western person's active ever-presence, the tendency of defining self and everything around, accompanied by acute stressing of “*own* property”, “*own* abode” and “*own* environment”. This is proved by the underlying idea of Taoism that the nature of reality is unaffected by our ways of trying to grasp it.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aoism (as f. ex. ‘shapelessness’) envisages that one is not separated from nature. Such world understanding is very difficult to unite with the model of thinking dominant in the West at the level of both scientific and daily consciousness. Contemporary Korean philosopher Byung-Chul Han attempts to show in his works that even regardless of the findings of philosophy the mentality of Western thinkers is unable to free itself from its hypertrophied ego ident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non-presence” of the Far East, which is manifested even in the absence of accurately marked city centres with the familiar “dominants” or the absence of main dish on the Korean table.

In Korea in the 21st century the comparison of Western and Oriental philosophy is present not only among the ranks of professional philosophers, the theme is also

tackled by researchers of religions and literature scholars whereby they stress dualism as the major issue to be overcome in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which according to Korean colleagues is manifested as separation of a subject from object, transcendence from immanence, idea from things, mind from body etc. This discussion in the Korean intellectual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within the context of Eastern-Western philosophical dialogue now includes numerous new aspects, including new assessment of the surviving ancient Shamanism whereby treating Shamanism as a world view in which:

There is no negation, but only affirmation ringing far and wide. The culture of the reunion of intellect and sensitivity, life and death, that is to say, the culture in which liberty and joy create history without oppression: this is the outlook of Shaman culture (Ryu, Tongshik).

Regardless the important place in Korea of the philosophic teachings -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 so essential all over the Far East, the dialogue between the West and Korea is possible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less known and more difficult-to-formulate intellectual traditions. In the Korean culture an important place is occupied by the concept of *han* (한), which to a certain extent coincides with the European existentialist concepts of *confusion* (in the meaning of *bemusement*) and *despair*. In the Korean context *han* is interpreted as grief, collective trauma as a result of human suffering and suffering of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Respectively, *han* is a set of emotions as the by-product of tragic experience etc. In literature, art, music and cinema it is manifested as one of the expressions of the Korean identity. Yet despite all similarities with the Western existentialism *han* does not change into either Western nihilism and radicalism or terrorism presently escalating in the near and Middle East. Sadness within *han* framework is active sadness and the people suffering it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and remain formally integrated in the family and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achieve considerable degree of internal freedom. This can be understood only through analysing *han* in relation to other, already mentioned traditional Far Eastern teachings. According to Lee Younghee :

The last stage of the *han* is the transcendental phase. In this phase, intimately related to Buddhism, desire is understood as the cause of suffering. Suffering is seen as temporary and as part of the transitory nature of the universe. This is not resignation but an embracing of suffering and joy, fear and love, pain and pleasure. "They disengage themselves from the web of life and their lives are put into a universal perspective, known as *musang-ham* (nothingness)." It is then the Buddhist framework that provides the final answer to *han*. Whereas Confucianism would have individuals accept their place in society and accept *han* as natural and part of the social system, and Shamanism provides an emotional release from *han* through a creation of a community of mutual suffering, it is Buddhism that helps us to spiritually understand and thus transcend *han*." This transforming and transcending process can be compared to one of the most prized symbols of Buddhism, the water lily. Although the water lily has its roots in murky silt and grows in muddy waters," it emerges beautiful and pure, untouched by the mud from which it grew.

At the same time, in the context of *han* – with regard to modern Korean literature we should not forget the influence of Taoism. As already mentioned, unlike in Europe, in the Far East it was literature rather than specific philosophical treatises that for a long time remained the place for presentation of philosophical ideas. Despite copying or interpreting examples of Western literature in Korea, which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ith time plot solutions of stories and novellas in the Korean literature departed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conflict-solution plots, which dominated in the West, and ruled out motifs of confrontation, victory, achievement and revenge. The

tackled by researchers of religions and literature scholars whereby they stress dualism as the major issue to be overcome in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which according to Korean colleagues is manifested as separation of a subject from object, transcendence from immanence, idea from things, mind from body etc. This discussion in the Korean intellectual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within the context of Eastern-Western philosophical dialogue now includes numerous new aspects, including new assessment of the surviving ancient Shamanism whereby treating Shamanism as a world view in which:

There is no negation, but only affirmation ringing far and wide. The culture of the reunion of intellect and sensitivity, life and death, that is to say, the culture in which liberty and joy create history without oppression: this is the outlook of Shaman culture (Ryu, Tongshik).

Regardless the important place in Korea of the philosophic teachings -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 so essential all over the Far East, the dialogue between the West and Korea is possible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less known and more difficult-to-formulate intellectual traditions. In the Korean culture an important place is occupied by the concept of *han* (한), which to a certain extent coincides with the European existentialist concepts of *confusion* (in the meaning of *bemusement*) and *despair*. In the Korean context *han* is interpreted as grief, collective trauma as a result of human suffering and suffering of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Respectively, *han* is a set of emotions as the by-product of tragic experience etc. In literature, art, music and cinema it is manifested as one of the expressions of the Korean identity. Yet despite all similarities with the Western existentialism *han* does not change into either Western nihilism and radicalism or terrorism presently escalating in the near and Middle East. Sadness within *han* framework is active sadness and the people suffering it continue to perform their duties and remain formally integrated in the family and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achieve considerable degree of internal freedom. This can be understood only through analysing *han* in relation to other, already mentioned traditional Far Eastern teachings. According to Lee Younghee :

The last stage of the *han* is the transcendental phase. In this phase, intimately related to Buddhism, desire is understood as the cause of suffering. Suffering is seen as temporary and as part of the transitory nature of the universe. This is not resignation but an embracing of suffering and joy, fear and love, pain and pleasure. "They disengage themselves from the web of life and their lives are put into a universal perspective, known as *musang-ham* (nothingness)." It is then the Buddhist framework that provides the final answer to *han*. Whereas Confucianism would have individuals accept their place in society and accept *han* as natural and part of the social system, and Shamanism provides an emotional release from *han* through a creation of a community of mutual suffering, it is Buddhism that helps us to spiritually understand and thus transcend *han*." This transforming and transcending process can be compared to one of the most prized symbols of Buddhism, the water lily. Although the water lily has its roots in murky silt and grows in muddy waters," it emerges beautiful and pure, untouched by the mud from which it grew.

At the same time, in the context of *han* – with regard to modern Korean literature we should not forget the influence of Taoism. As already mentioned, unlike in Europe, in the Far East it was literature rather than specific philosophical treatises that for a long time remained the place for presentation of philosophical ideas. Despite copying or interpreting examples of Western literature in Korea, which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ith time plot solutions of stories and novellas in the Korean literature departed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conflict-solution plots, which dominated in the West, and ruled out motifs of confrontation, victory, achievement and revenge. The

Comparison of Honorific Forms and Their Usage in Korean and Latvian Languages

Ildze Šķestere (University of Latvia, Latvia)

1. Introduction

The most difficult parts of learning a language are frequently the ones that do not appear in your mother tongue. Or if they do, they take on a completely different look from what you are used to. Korean language and Latvian language share only slight similarities as they are from totall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with different linguistic characteristics. Latvian language is part of the Baltic branch of the Indo-European language tree and Korean language is said to be an isolated language part of its own language family. This makes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difficult and sometimes impossible, but even so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n how one or the other language can be more efficiently learned by the native speakers of the other it can become necessary.

In this case the comparison will be made between the two languages' approach to formality and honorifics. The usage of honorific forms is important in a variety of languages, but especially so in Korean, where the system is based on a long-standing tradition which stems from Confucian values. Not using the correct honorific forms will result in awkward situations at best and ruined chances in business or personal relationships at worst. In the case of Latvian, the use of honorifics is much more subtle and not such a big focus in daily life. Even so native speakers frequently use these subtle forms, a lot of the time not even thinking much of it.

With the possibility of some comparison and showcasing enough examples this becomes a way on how to better learn languages and understand the culture that surrounds them. For now, only in this format, but in the future research on this topic could be expanded.

2. Honorific Forms in Latvian

There is no specific honorific system in Latvian as such, instead a system called functional language styles was created to classify a somewhat similar phenomenon. There are five functional language styles – scientific, formal, journalistic, colloquial and literary style. This system was created during the 1960s based on an existing one in Czech language. But it has been noted that attempts at categorization began even before that when Latvian

language was first attempted to be systemized as such.

Definition: a functional language style is a historically developed type of language, which is characterized by a certain sphere of functioning and the related selection of specific language tools.

Honorific forms or lack of them appear quite prominently in the formal and colloquial styles of Latvian language and their combination with one another. The formal style is usually considered mainly a written form. The oldest written examples of a formal functional style in Latvian language come from the 17th century documents and translations of documents. It has since been further developed and has distinct guidelines on usage depending on the type of document or communication. The spoken parts of this style and their combination with the colloquial style are much less defined, but they can definitely be observed, especially in business, work spaces and daily interactions which require a certain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users.

A notable grammatical part of the formal style in Latvian is the so-called T-V pronoun distinction, which has the 2nd person plural pronoun used in certain contexts as the 2nd person singular pronoun. While it is no longer part of common day English language, it remains a feature in many Indo-European languages and it originates from the Latin *tu* and *vos*. In Latvian – *tu* and *jūs*.

The first pronoun *tu* and its case forms (shown in table below) note a sense of closeness or lack of necessity for formalities and are the most widely used form to address somebody in the 2nd person. The second form *jūs* and its case forms (shown in table below) are rarer and note a sense of high formality or a lack of closeness. This form is frequently used in formal settings and when talking to somebody for the first time. It is maintained if the relationship remains strictly professional. It is expected to be used and the form with the capital letter has to be maintained throughout when writing formal documents that are addressed to somebody (formal e-mails, letters, greeting cards etc.).

Table. Comparison of case forms for the 2nd person pronouns in Latvian

Grammatical Case	Singular	Plural and Formal Singular
Nominative	Tu	Jūs
Genitive	Tevis	Jūsu
Dative	Tev	Jums
Accusative	Tevi	Jūs
Instrumental	(ar) Tevi	(ar) Jums
Locative	Tevī	Jūsos

Another part of the formal style stems from the Latvian grammar characteristic of matching the verbs in the sentence to the nouns or in this case pronouns used. Thus, even though the addressee is a singular person, if the plural pronoun is used, the verbs are also changed accordingly.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verbs do not change, it all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verb – 1st, 2nd, 3rd conjugation verbs or irregular verbs.

Examples:

Who are you? – Kas tu esi? Kas jūs esat?

Where are you going? – Kur tu ej? Kur mūs ejat?

Your bag is open. – Tava soma ir vaļā. Jūsu soma ir vaļā.

I am going with you. – Es iešu ar tevi. Es došos ar jums.

The examples show both cases of verbs changing or staying the same in their conjugated forms. The last example shows that there are instances when a different verb is preferred to be used in the case of wanting to appear more formal – using doties instead of iet (both mean go in Latvian). This is a characteristic of the formal functional style of language which prefers stronger, but neutral words, instead of more colloquial style expressions.

The last part of honorific forms in Latvian to mention are honorific titles or address. In Latvian these are words that show respect towards a person or that person's achievements, usually in academics or career. The most common example is kungs/kundze which is the equivalent to Mr./Mrs./Ms. titles in English. They are usually placed after person's full name or last name. Another common example is in academics with the use of profesors/professore which is the equivalent of professor in English. This form is usually placed before the person's full name or last name. There are no honorifics used in the case of informal situations, then the person is simply called by their name or nickname and sometimes by their familial relationship title to that person, but is not considered an honorific form usually.

Example:

Annas Liepas kundze Jūs tikāt ielūgta uz atklāšanas balli?

Profesors Liepiņš piedalījās grāmatas atklāšanā.

Mamma aizgāja uz veikalu.

3, Honorific Forms in Korean

The very first thing most Korean learners see in their studies is the way how to say “I” in Korean. This is their first step into the world of honorific forms in Korean. There are two ways to say “I” – 저 or 나. The first one – 저 – is regarded as a way of showing humbleness, lowering yourself and showing respect towards the addressee of the sentence, while 나 does not have that connotation and in a lot of conversations could be considered rude if uttered.

Beyond this Korean language overall is a language that is rich with grammatical forms that require specific context and situations to be used in. A great part of those fall into the many categories that can be called honorific forms.

These forms as a group in Korean have different names – 높임법, 높임말, 존댓말 etc.

But all of them express the same idea that there is somebody that is lowering their speech in politeness and that there is somebody that is making their speech higher in politenes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us, these honorific forms are used according to certain conditions: social (age, family, status) or psychological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These honorific forms have a long history and they have evolved over time. A lot of them have been forgotten and they are not used in common modern Korean language. For sake of clarity and ease, for this particular paper only the modern Korean language forms that are most used will be looked at.

Overall, it has been agreed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honorific forms in modern Korean language and the types of expressions are grammatically divided into sentence final endings (종결어미), pre-final endings (선어말어미), postpositions (조사), vocabulary (어휘) and suffixes (접미사).

The three types are:

1) 주체높임 or subject elevation

This first group uses all of the grammatical forms mentioned above to show politeness toward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subject's age and/or social status. These forms are only used for 2nd or 3rd person. In rare cases 1st person may also be used, but only when exaggerating for literary purposes.

Forms used: pre-final ending -(으)시, postpositions -께, -께서, suffix -님, special vocabulary (verbs)

Examples: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부르신다.
 선생님이 우리집에 오셨다.
 이 교수님은 사무실에 계십니까?

An interesting case is when the listener of the sentence is older than the speaker, but the subject is younger than the listener. Then the pre-final ending -(으)시 is usually omitted. This is usually referred to as 압존법 or relative honorifics.

Example:

할머니, 어머니 어디 갔습니까?

It is also possible that not the person themselves, but their possessions or traits are treated with the same respect.

Example:

사장님의 사업이 잘 되셨어요?

2) 상대높임 or addressee elevation

This group is mainly expressed through sentence endings and take into account the person that is hearing or reading the conveyed message. In this cas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receiver's age and/or social status.

The sentence ending types are classified as 아주높임 or highly addressee raising, 예사높임 or moderately addressee raising, 예사낮춤 or moderately addressee lowering, 아주낮춤 or highly addressee lowering. These forms also frequently are called by different names like 존댓말 and 반말.

Forms used: various sentence final endings according to sentence type and connotation

Examples:

아주높임 -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주높임 -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사높임 - 그 소식을 들었어?

아주낮춤 - 그 소식을 들었냐?

These examples illustrate how different a sentence with the same meaning can sound when there is an addressee of a different age or status.

3) 객체높임 or object elevation

This type of formality is mainly expressed through vocabulary and postpositions. It shows respect to the object or adverb in the sentenc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object's age and/or social status.

Forms used: vocabulary, postposition -님, suffix -께

Examples:

내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께 말씀 드립니다.

Another part of Korean honorific forms are the forms of address which were partially looked at above, but there are more cases than the mentioned grammatical forms and these are honorific forms of address or 호칭. Just like the other honorific forms this is also a complex phenomenon that would require a lot of in-depth research to showcase them all. Here the most common forms of address that learners of Korean language use will be discussed.

The form of address towards another person depends on a lot of conditions. It is once again a question of age, statu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When first meeting and when upkeeping a formal relationship 씨 or 님 is added next to the last name or full name. In other cases the title of the person's profession or position with the suffix -님 is added to their last name.

Example:

김하늘 씨 여기 오세요.
이석진 님도 초대했습니다.

If it's a closer or more familiar relationship with a slightly older person than the speaker then familial titles like 형, 누나, 언니, 오빠 etc. are used either alone or added to the person's name. If it's a younger person than the speaker then frequently just that person's name is used.

Example:

아린 누나 왔어요?
민호 오빠를 봤어?
윤호가 어디 있어?

These types of formal address are usually used both when speaking to the person and referring to them as the subject or the object of the sentence, so they apply to all the honorific form categories above.

4. Honorific Form Usage Comparison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t honorific systems in each language can shed a light on how to introduce the very complex system in Korean language to new learners it. It would be much easier if there were proper terms and plenty of examples explained in a way that is familiar to the learners' own language and culture. A part of it might also be creating new terminology and teaching this terminology to students learning the language. Thus far there have been distinguished researchers and papers made on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s in Latvian, but beyond student theses and some textbooks almost nothing on Korean language. This paper will attempt to make some headway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bridge on navigating the two language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he first point of comparison would be the pronoun system usage and formality. As mentioned above the Latvian system of formality weighs mostly on usage of T-V pronoun distinction. Whereas in Korean while they do exist, in practice the 2nd and 3rd person pronouns are usually replaced with honorific forms of address or skipped altogether.

Examples:

교수님, 어디 가세요? Profesor, kur jūs dodaties?
오늘 언니가 못 갔어요. Viņa šodien nevarēja ierasties.

The two examples show how vastly different the two sentence structures and sometimes even meanings can become when trying to adhere to each language's honorific system and their natural usages. In the first example while the Korean sentence has just the honorific form of address, the Latvian sentence has both the honorific pronoun and form of address. In the second example mentions the honorific form of address in Korean, but in

Latvian it's more natural to use the 3rd person female pronoun. To further expand upon this the table below shows a comparison of the pronouns in both languages with some important points highlighted.

Table. Korean and Latvian Personal Pronoun Comparison

Person		Korean			Latvian
		예사말	높임말	낮춤말	
1st	Singular	나/내	본인	저/제	Es
	Plural	우리(들)		저희(들)	Mēs
2nd	Singular	너/네, 당신	당신, 그대	자네, 당신	Tu / Jūs
	Plural	너희(들)	여러분(들), 그대들		Jūs
3rd	Singular	그/그녀	당신		Viņš/Viņa
	Plural	그들/그녀들			Viņi/Viņas

As the table shows there is a variety of pronouns in the Korean language according to formality, while Latvian has a much simpler system. It is however interesting to note that a lot of the Korean pronouns are not used in everyday life. The ones that do get used frequently are the 1st person pronouns and 2nd person plural pronouns. For new learners of Korean language especially coming from a background of Indo-European languages it can be difficult to get used to this, but with plenty examples similar to the one's above and more exposure to the language in the classroom and outside it will eventually become a part of their language habit to adhere to the proper system in each language.

Lastly, an important part of pronoun usage is the switching between the formality levels. Usually, the usage of honorifics in Latvian comes quite naturally, but there can be instances when one party asks the other if they can refer to them as tu the 2nd person singular pronoun. This indicates a sense of the relationship getting more familiar and friendlier. Sometimes it happens without asking over the course of time while working with or getting to know the other person. This is similar to Korean language where it is not uncommon to ask permission to use 반말 or informal language with somebody of a similar age. This also can happen quite naturally over time, but it is more common to actually ask.

An interesting part to look at in the honorific system are the honorific nouns used in Korean. Like using different words for house, age, person, meal etc. when speaking to or about people who are older or higher status than the speaker. In Latvian, while it is usually not done in day-to-day conversation, there are some instances where synonyms or diminutive forms of a word might be used instead to give the sentence emotional flare or a different connotation. This can only be done in appropriate situations and with the right people, otherwise it can be considered rude. This might be a good comparison for learners to grasp this concept in Korean.

Examples:

House: 집 / 댁 Māja / Mājele / Ūķis

Age: 나이/연세 Gadi / Gadiņi

The next part to compare would be the honorific postpositions and suffixes used in Korean sentences. These can be daunting for Latvian learners at first, because they seem like a completely new grammatical pattern they are not used to. Here the comparison can be made with the noun case system in Latvian as shown in the table below.

Table. Comparison of postpositions in Korean and case system in Latvian

Postposition in Korean language	Case in Latvian language
-은/는 -이/가 -께서	Nominative
-의	Genitive
-에게/-한테/께	Dative
-을/를	Accusative
-와/과 -(이)랑 -하고 함께	Instrumental
-에 -에서	Locative
-야/-아, -님	Vocative

This is only an approximate comparison that is made so it would be understandable to Latvian students a more complete research into Korean postpositions would be needed to make a complete table and thorough examples.

The most complex case for comparison is the sentence ending honorifics. As noted by the author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Latvian students of Korean language often get confused with the difference in translations or sometimes the lack of them. In the most basic cases it is not hard to make distinctions when looking at two complete opposites of the honorific system spectre, like shown below.

Example:

뭐 하고 싶어? –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Ko tu gribi darīt? – Ko Jūs vēlaties darīt?

But in a lot of more complex cases, there are no Latvian equivalents to make the translations different enough that the formal connotation behind it comes through.

Example:

오늘 뭐 해? – 오늘은 뭘 해요?

Ko šodien dari? – Ko šodien dari?

While these are just rudimentary examples, they show a difficulty that comes with learning a language with grammatical forms vastly different from one's native language. This is something that can only be taught through a lot of exposure to dialogue between different people in the target language and when necessary, making

comparisons to their native language.

5. Conclusion

Overall, grasping the subtle differences on formality will still be a challenge to any learner of the language no matter what. But comparative linguistics offer a chance to examine both the learner's mother tongue and their target language closely, noting the differences and bringing up examples that can be comparable to better understand both sides. In the case of Latvian and Korean there were a surprising number of grammatical constructs that could be comparable. This shows possibility in expanding the materials Korean language teachers use to include more technical aspects of the language while including examples from real life that illustrate them.

Thus far, the grammar books and textbooks published in Latvian only showcase the Korean language grammar points making little or no comparison to other languages, which for learners that are using these books for self-study with no teacher to expand upon the topics, can make it quite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what exactly is meant there. With case studies and further research in both comparative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it is possible to make this more of a common feature in Korean language classrooms or study materials in Latvia and other places too.

Bibliography (APA 6th editon)

- 1) Skujiņa, Skujiņa, Valentīna, & Latvijas Universitāte. Latviešu valodas institūts. (2007). Valodniecības pamatterminu skaidrojošā vārdnīca : Aptuveni 2000 terminu latviešu, angļu, vācu un krievu valodā / sastādījis autoru kolektīvs V. Skujiņas vadībā ; LU Latviešu valodas institūts. Rīga: [Valsts valodas aģentūra].
- 2) Veisbergs, Veisbergs, Andrejs, & Valsts valodas komisija. (2013). Latviešu valoda / Andreja Veisberga redakcijā ; Valsts valodas komisija. Rīga: LU Akadēmiskais apgāds.
- 3) Skujiņa, & Skujiņa, Valentīna. (2011). Lingvodidaktikas terminu skaidrojošā vārdnīca : 470 terminu latviešu, angļu un krievu valodā / autoru kolektīvs: Valentīna Skujiņa (darba vadītāja) ... [u.c.].
- 4) Uzruna. (n.d.). Latviešu Valodas Resursi. Retrieved April 20, 2021, from <http://valoda.ailab.lv/latval/vidusskolai/TEKSTS/uzruna.htm>
- 5) Sohn, H. (1999). The Korean language / Ho-min Sohn. (Cambridge language surveys). Cambridge, UK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6)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2008). 도서출판 서울.
- 7) 라트비아 대학교 아시아학부 한국학 대학원 과정 특별 세미나 자료집. (2018). 라트비아 대학교.